

주일 낮 예배 순서

【환경선교주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4. 주 우리 하나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보호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인간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분노와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악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한 이를 향해 폭력을 쏟아내는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좀 더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호12:5,6 인도자

♣ 교 독 문 113. 자연과 환경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조항범 권사

2부응 답 송 찬양대

2부찬 양 478. 참 아름다워라 다 함께

♣ 성경봉독 시 104:10-18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II. 광상준 집사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주기도 찬양대

말 씌 조화로운 세상의 꿈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광정자 국지연 김광일 이부용 김근종 정옥영 김명희 김병대 김세진
김정길 최숙화 김정민 이해령 김현주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문복순 민지회
박규석 박경선 박미연 박시내 박예림 박재영 이현정 백묘현 서원금 신진식
변혜정 심상숙 오자영 원용일 최현선 윤영미 이국노 김민화 이미희 이봉옥
이우상 이계월 이현순 임선양 신현숙 임호성 정두리 정연경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정진호 양순임 조경자 조순덕 최다미 최원남 김희천 최은미 허준호
현진

감사헌금

강금분 강석남 광권희 권준호 유혜진 김기석 김 린 김영호 김재흥 최희영
김해선 류건형 이주은 문복순 민지회 박미연 박옥순 설재용 김선희 손미자
신진식 변혜정 이광재 이미정 이신영 홍성수 이은옥 이은혜 이재희 이창수
홍남식 전영린 김행자 정수복 장미란 최다미 최미선 최원남 김희천 추은총
홍연우 무명12

녹색꿈헌금

김나름 김향자 박순섭 권미숙 양상철 박재란 이수자 임설희 무명9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무명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유중희	청 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이재문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박정숙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안정숙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박미영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오복순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광권희	김필순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김명희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김경혜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딸년을 안고

한 살배기 딸년을 꼭 안아보면
 술이 번쩍 깬다 그 가벼운 몸이 우주의 무게인 듯
 엄숙하고 슬퍼진다
 이 목숨 하나 건지자고
 하늘이 날 세상에 냈나 싶다
 사지육신 주시고 밥도 별게 하는가 싶다
 사람의 애비 된 자 어느 누구 안 그러리
 그런데 소문에는
 단추 하나로 이 목숨들 단숨에 녹게 돼 있다고도 하고
 미친 세월 끝없을 거라고도 하고
 하여, 한 가지 부탁한다 칼 쥔 자들아
 오늘 하루 일찍 돌아가
 입을 반쯤 벌리고 잠든 너희 새끼들
 그 바알간 콧밥 한번 들여다 보아라
 귀 뒤로 어리는 황홀한 실핏줄들
 한 번만 들여다 보아라
 부탁한다

- 김사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환경부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남의 몫을 넘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이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사십시오. 그렇게 조화롭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늘 부족과 결핍을 느끼며 남의 몫을 결눈질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조화로운 세상의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동호회 / 각 동호회별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예배위원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김문주 집사

6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이소애
	1부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황현성 한성건 진정숙 이오복 이현순
	2부 헌금위원	박홍재 유경순

자발적 불편운동

물 절약 원칙

물을 절약하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절약은 번거로운 것입니다. 반대로 낭비는 손쉬운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TV에서 본 한 아이 때문에 물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식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한 봉사자가 두 살 정도 됐을 아이를 들쳐 안고 물 한 사발을 먹이고 있었는데요. 사발을 입에서 떼려는데 그 아이가 자그마한 손으로 다시 사발을 끌어당겨 물을 벌컥벌컥 먹는 모습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알아보시다.

1. 받아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치컵 사용하기 (헹굴 때 30초간 물을 흘린다면 6리터의 물 소모, 대신 컵에 물을 받으면 3컵 사용해도 0.6리터에 불과), 대야나 세면대에 물 받아 세수하기,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모아서

설거지가 많이 쌓이는 게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빨래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물 절약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설거지거리와 빨래감을 수집하는 버릇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전에 기름기와 음식물 찌꺼기를 한 번 닦아내기만 해도 60%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끓여서

정수기를 이용하면, 말 그대로 정수하는데 많은 물이 든다고 하더군요. 전기도 들죠. 물을 끓여 먹으면 물을 아낄 수 있고, 취향에 따라 맛있는 차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요.

4. 기타

변기에 벽돌 등을 넣어두는 방법도 모두 들어는 보았지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변기에 벽돌이 들어있나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샤워를 오

래하면 그만큼 흘러버려지는 물도 많습니다. 15분 이내 샤워를 하면 20분 이상할 때보다 18-25리터의 물이 절약됩니다. 애초에 절약형 샤워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수가 있는 수도꼭지나 배관은 잘 점검하여 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상 다이어트

... 음식물쓰레기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문화,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의 고급화 등은 음식물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체 발생하는 쓰레기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1명이 하루 동안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280g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8,400g, 1년이면 102.2kg입니다.(2010년 기준) 전체 음식물의 1/7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8조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가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16%), 집단 급식소(10%), 유통단계(4%) 순으로 발생되고 있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 외식할 땐 미리 집에 알려주기
- 가족 식사량에 맞게 요리하기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배출하기
- 일주일 단위로 식단구성하기
- 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 메모하기
- 날개 포장 제품 구입하기
-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하기
- 주 메뉴 외의 반찬 수를 가급적 간소하게 줄이기
-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기